

글쓰기로서의 만주제국의 문학적 현상

김 윤 식 명지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

I. 잉여 부분으로서의 글쓰기

제 전공이 한국 근대문학이기에 이런 자리에 나설 만한 처지가 못 되지만, 전공 중 일부분이 구만주(舊滿洲) 지역과 관련된 대목도 있어 아주 못 올 데를 왔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면 연구의 선구적 업적이 여러 권 나와 있어 이를 음미한 과정에서 잘만 하면 약간의 보탬이 될 시각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볼 때 만주 지역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일본지역이란 무엇인가? 또 만주지역, 러시아지역이란 무엇인가?’ 등과 광의에서 같은 질문 방식에 해당될 성질의 것이겠습니다. 이 때 주목할 것은 만주제국이나 민족의 개념이기에 앞서 오는 것, 곧 <지역>의 개념입니다. 만주제국(1932-1945)이란 위(僞)만주국이라 불리듯, 국가이긴 해도 허상이며, 민족 역시 5개 민족이라는 것으로 하여 이념적 과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 통치하에 있던 한국인에 있어 만주란 두 가지 점에서 특수지역이겠지요. 하나는 훗날의 표현이지만 왕도낙토 개념입니다. 두만강을 건너기만 하면 간도지역이 있고 거기엔 무제한의 농토가 펼쳐져 있다는 인식이 그것. 먹고 살기 위한 경제 개념이 앞섰지요. 두 번째는 모두가 잘 아는 독립운동의 지역개념입니다. 안수길의 「북간도」(1963)가 그러한 인식의 통합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기 위해 열린 지평이란 물론 현해탄 건너에도 있긴 했지만, 만주 지역과는 질적 차이가 있었던 바, 전자가 종주국 지역이라는 인식에 비해 후자는 막연하지만 열려 있는 땅이라는 인식입니다. 이역(異域)이라는 점에서는 양자의 인식이 같아 해도 땅이라는 개념이 가리키듯 만주 지역이란 흥과 관련된 것이어서 고향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의 의미가 스며 있습니다. 만주제국 성립과 건국이념인 협화론 이후에도 그 개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만주 지역이란 산업 사회적 상상력인 근대 쪽과 농경사회 상상력 쪽의 양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자를 잘 알려 주는 작품에 김동리의 「절레꽃」(1939), 황순원의 「기러기」(1942, 발표 1950) 등이 있습니다. 만주에 간 지 두 해만에 친정에 있는 아내를 부르자 이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길을 떠나는 여인을 다룬 「절레꽃」도, 돌 지난 아기를 둔 아내가 만주에서 온 망나니 남편의 편지를 받고 기러기 소리가 표상하듯, 남편 찾아나서는 「기러기」도 이런 문맥에서 읽힙니다.

근대적 공장 노동자로서의 현해탄 건너기와는 이 만주 지역의 인식 방법은 이 점에서 구별될 것

입니다. 농경사회 상상력이 주조로 되어 있기에 이처럼 만주 지역은 생리적이자 자연스러운 심정적 편향성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시선은 일면적입니다. 한설야의 「합숙소의 밤」(1927), 「어두운 세계」(1927) 등의 경우는 산업사회 상상력의 질서관에 따른 작품들입니다. 그것은 근대가 지닌 제도적 운용 방식에서 만주 개혁이 가능했음을 가리킴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위의 두 가지 상상력을 음미하고 거기에서 넘쳐나온 글쓰기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씌어집니다.

II. 만주 지역의 독자성

안수길의 「벼」(1940), 「목축기」(1943), 현경준의 「유맹」(1940) 등의 검토는 상당한 인내력을 필요로 합니다. 개척문학이나 생산문학이란, 따지고 보면 농경사회 상상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농경사회 상상력의 방식을 분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만주개혁의 지향성이 일종의 산업사회 상상력에 결부되어 있기에 특히 그러합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재만 조선인 문학자의 창작집 『싹트는 대지』(1941), 『재만 조선인 시인집』(1943)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A) 산업사회 상상력에 보다 많이 기울어졌다는 점. 만주개혁이란 그 자체가 농경사회 상상력이지만, 그 운용방식은 단연 산업 사회적 상상력이 크게 작동되어 있었지요. 개혁이민단의 성립 및 그 조직기구와 운용방식이란, 관동군으로 표상되는 제국 일본의 제도적 장치에서 온 것인 만큼 이 속에 일관해 있는 힘의 근거란 근대적 산업사회의 상상력이 아닐 수 없지요.

(B) 만주제국의 문학적 현상이라는 것. 두루 아는 바, 만주제국의 성립 근거로 내세운 것이 5개 민족 협화입니다. 이 중 두 번째가 조선족이며 두 사람이 각료로 들어갔던 것(박석운, 진학문). 5개 민족의 평등이 만주제국의 건국이념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이념상에서 보면 획기적 사실이라 할 만합니다.(조선총독 미나미[南]가 이에 항의한 바 있다. 민족 상하 구별을 철폐한다면 조선 통치에 위협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兒島襄, 『만주제국(2)』, p. 306)

이러한 민족 평등주의 이념이 서서히 민족 질서론(일본족 우선주의)으로 개편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이념은 민족 질서론으로 일관된 조선 통치 방식에 비해 당시로선 괄목할 만한 것이었지요. 내선일체(內鮮一體)로 조선 통치방식이 수정되는 것도 이와 견주어 검토할 만합니다.

『싹트는 대지』란 새삼 무엇인가? 염상섭의 서문을 비롯 「암야」(김창걸), 「밀림의 여인」(박영준), 「추석」(신서야), 「새벽」(안수길), 「초원」(한찬숙), 「유맹」(현경준), 「제화」(황건) 등의 글쓰기란, 위에서 살핀 (A)와 (B)의 측도로 잴 수 있을 터입니다. 말을 바꾸면 <만주제국의 문학>이라 규정될 터입니다. 이 때 주목할 점은 만주제국의 문학이라는 독자성이 아닐 수 없지요. 그것은 <망명문학>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이민문학>일 수조차 없지요. 이 점을 몰각했을 때는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터입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노래 「선구자」를 들 것입니다. 윤해영 작사, 조두남 작곡인 이 노래가 한동안 국내에서도 각지의 교포 사회에서도 상당히 유행한 바 있었지요. 그러다 작사가 윤해영이 「낙토만주」를 쓴 시인이었음이 밝혀지자 상황은 역전되었지요. 한국 근대문학의 시선에서 보면 친일문학자로 규정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정의 노래(선구자)」의 시인 윤해영은 어떻게 규정될까? 권철, 김호웅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의 시선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의 강압적인 정치와 살벌한 문화 풍토가 낳은 가장 모순되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시인”(김호웅, 「암울한 현실과 시인의 양면성」, 『동아시아 문학에 나타난 만주체험』, 1999. 8)으로 평가됩니다. 적극적으로 말해, 윤희영의 시란 만주제국의 문학이라 하겠지요. 「혈거부족」(김동리, 1948)이나 「소년은 자란다」(채만식, 1949)에서 보듯, 국내엔 몸을 붙일 만한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주인공들이 해방이라는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귀국한 경우도 있으나, 한갓 예외적인 감상주의적 처사라 비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백만 명을 헤아리는 조선족들이 해방과 관계없이 만주에 정착한 엄연한 현실이 이를 증거 합니다.

만주제국은 그 붕괴될 때까지, 겉으로나마 5개 민족 협화의 이념 아래 있었던 만큼 그 제국의 언어도 원칙상 5개 언어 사용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문학도 그러했지요. 폐망 직전 만주제국의 관리들이 조선 시찰을 한 바 있는데, 그들의 관심사의 하나는 조선에 있어서의 국어(일본어) 보급 문제였지요. 총독부 회의실에서 열린 2차 모임엔 잡지 기자 및 문인들도 참석했다 하오. 거기서 나온 말을 조금 옮겨 보면 어떠할까요?

『국민문학』지의 石田(최재서의 창씨개명)씨가 ‘만주에도 언문(한글)으로는 우수한 소설을 쓰는 5, 6명의 작가가 있는 바, 그것을 어떻게 하든 끌어올릴 방도는 없겠는가’라고 했다. 만주 국내의 한글 문자의 문학을 육성시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순간 일종의 뜻밖의 울림이었다. 조선 내의 사람들 쪽에서 보면 무리이리라.(松岡二十世, 「조선 소묘의 하나」, 『協和運動』, 만주국 정부 기관지, 7권 3호, 1945. 3, p. 27)

서점을 둘러보고 한글로 된 책들이 많이 있음에 주목하여 또 이렇게도 적어 놓았습니다. “石田군의 바램대로 만주국 내에 한국 문학작품을 육성까지 할 처지는 아니라 해도 간도성 주변의 조선인들에게는 어떻게든 조선에서 출판된 이들의 출판물을 어떻게 하든 읽힐 방법이 없는가 생각했다”라고. 「재만 각 민족문학 특집」(『新滿洲』, 1941. 11)에 안수길의 「부엌녀」(1937)가 조선족의 대표작으로 실렸던 것도 이런 문맥에서 읽힙니다.

이와 같이 만주제국 자체가 안고 있는 문학이 별도로 있었던 만큼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양상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양상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를 짚 수 있는 측도의 모색이 문제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지요.

Ⅲ. 두 가지 형식의 <또 다른 고향>

만주제국의 시선도 한국 근대문학의 시선도 아닌 제3의 시선은 없는 것일까. 말을 바꾸면 이민문학도 망명문학도 아닌 제3의 문학(글쓰기)도 성립될 수 없을까. 또 말을 바꾸면, 만주제국 자체가 제국 일본이 몸부림친 탈근대 또 <근대의 초극>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서구적 근대를 충실히 모방해 온 그래서 저 대단한 탈아론을 이루어낸 제국 일본이 이번엔 입아론(入亞論)으로 일체히 비약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만주제국의 환각을 창출해내지 않았을까?

저 악명 높은 경도학과(京都學派)의 근대의 초극론이란 <근대적 세계와는 다른 질서와 구조를 가진 현대적 세계>의 모색이었고, 그 정치적 지향점은 모두가 아는 바 아시아의 맹주 되기(이른바 대동아공영권)였던 것입니다. 이 장대한 실험장이 만주제국이자, 또한 그 환상의 정주(定住) 지역이기

도 했던 것.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지적도 썩 신선해 보입니다.

<이향(異郷)의 소화문학(昭和文學)>이라 할 때 그 <이향>이란, 내지(일본열도)에 대응된 <외지> (반도, 대륙, 섬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화의 일본인의 정신 내부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고향> 이자 근대정신 그것이 방황한 끝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정주의 땅을 일컬음이다. 따라서 그것을 단순한 <이역>이 아니며 또한 <외지>라든가 <식민지>, <대륙> 등이라든가 <아시아>라고 말을 바꾸어 버리면 그 무엇인가가 넘쳐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川村湊, 『異郷の昭和文學』, 岩波新書, 1990, p. 26-27)

이러한 심층 분석은 간도에서 낳고 자란 시인 운동주의 「또 다른 고향」과 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었다.

어둔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드러다 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고향」, 1941. 9)

정작 태어나 자랐던 고향 용정에 돌아와도 시인의 마음은 아득합니다. 정주지일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다른 고향>을 낳는 것입니다. 실상 마음은 저 멀리 현해탄 너머에 있었던 것. 이러한 시인의 무

의식이 백골 몰래 움트고 있었던 것. 그러기에 시인 운동주의 지향성과 또 다른 고향을 지향하는 근대 일본인의 심층의식은 역방향에 서는 것이지만 죽히 대비시켜 논의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의 중요성은 이들의 지향성이 각각 일본 근대문학과 한국 근대문학의 주류 속에 수렴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집니다.

IV. 한설야의 『대륙』과 이기영의 『처녀지』의 좌표

또 다른 두 가지 고향에 견줄 때, 한설야의 일어(日語) 장편 『대륙』이나 한글로 된 이기영의 장편 『처녀지』는 어떤 좌표에 놓아야 될까. 『대륙』(『국민신보』, 1939)은 간도를 중심으로, 먼저 정착한 일본인 청년 하야시(林)와 그의 동창생이자 대륙 진출에 휩싸여 만주로 달려온 오야마(大山)가 군부를 믿고 온갖 방자한 일을 망설임도 없이 펼치며, 또 중국 처녀와 사랑까지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어 글쓰기 공간(1942. 10-1945. 8)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설야의 이러한 일어 소설이란 대체 무엇인가. 한설야의 처지에서 보면 자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초기부터 일어로도 조선어로도 소설을 써 왔기에 『대륙』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의 시선에서 보면 수용될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속문주의(屬文主義)에 따라 일본 근대문학일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남아 있는 가능성으로는 만주제국의 문학 범주가 고려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이런 고려사항은 다분히 부정적일 터입니다. 작가 한설야가 만주국민도 정주민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민자도 아니라는 점, 또 소재가 비록 만주이긴 해도 그 이데올로기적 시선이 극히 친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느 쪽에도 『대륙』이 놓일 좌표는 없는 것일까. 다만 한 가지 가능성으로 고려되는 좌표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요. 어느 국민국가 문학에도 소속되지 않는 바의 글쓰기 좌표가 그것. 포스트콜로니얼의 좌표를 설정한다면 『대륙』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습니다. 글쓰기 일종인 까닭입니다. 아마도 제3의 동북아스런 좌표축의 설정이 요망되는 장면이겠지요. 이와 흡사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기영의 장편 『처녀지』가 그것. 북만주 개척촌과 만주국 수도 신경(장춘)을 무대로 하여 조선인 개척 마을과 조선인 청년 의사를 등장시켜 개척민과 의료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과연 어느 좌표축에 놓일 수 있을까. 조선인 중심의 만주개척 소설이란, 일본 국책의 일종에 닿아 있고, 따라서 <왕도낙토>의 이데올로기 위에서 논의될 성질이겠지요. 비록 조선어로 썼다고 해도, 그 조선어란 적어도 1944년의 시점에서라면 일종의 <이중어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을 터입니다. 굳이 이를 두고 이중어 글쓰기의 제5형식이라 규정한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해도 좌표 설정을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없을까요.(줄저, 『20세기 한국 작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이러한 것들은 만주국이 지닌 <문학적 현상>이라 하겠지요.

V. 글쓰기로서의 문학적 현상

‘위’만주족 또는 ‘구’만주국이라 말해지는 만주제국이란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규정되고 또 이해되는 것일까. 당시의 만주제국을 표현한 <문학적 현상>도 이 물음의 한 부분에 포함될 것입

니다. 이 문학적 현상을 재는 축도의 하나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각을 들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만주국의 문학적 현상 속에 한국적 이민문학의 범주가 가능한가의 여부도 검토될 것입니다. 본국 문학을 옮겨 오되, 보다 혁신적인 요소를 내포한 것이 이민문학이라면(G. 브란데스, 『이민문학』, 1900) 우리의 경우 부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망명문학>의 범주 설정이 가능한가. 이 해답 역시 부정적일 것입니다. 만주제국이란 성격상 망명지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까닭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떻게 규정되어야 적절할까? 이 물음에 제가 잠정적으로 고려해 본 것이 <글쓰기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개념은, 바르트나 데리다 등이 말하는 저술가와 자동사로 글 쓰는 작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한 것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이중어 글쓰기 공간을 다룬 졸저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및 해방공간을 다룬 『해방 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에 사용한 개념에 이어진 것입니다. 자동사로서의 글쓰기든 아니든 이 두 공간은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이념에서 벗어난 형국이지요. 국민국가주의에서 벗어남 또는 확정 불가능성이 이 공간의 특징이기에 이 공간의 글쓰기란 그 소속감이 불투명합니다. 만주국의 <문학적 현상>도 이와 흡사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오늘의 동북아 3국의 좌표축에다 만주국 <문학 현상>을 놓고 볼 때 그것은 중국의 것도 조선의 것도 일본의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두의 것에 연결되어 있을 터입니다.